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의 수련경험

주 흥 화(ZHOU, HONGHUA) 이 소 연 서 영 석[†]

연세대학교

석사졸업

박사과정생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상담전공 학위과정을 포함한 수련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선족 중국인 상담전공자 4명과 다른 민족(비조선족) 중국인 상담전공자 7명 총 1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한 텍스트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5개의 영역과 15개의 구성요소, 29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영역은 ‘한국에서 상담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입학 전 느낀 복합적인 심경’, ‘학업과 수련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외국인 상담전공자로서 혜택을 경험함’, ‘수련경험의 의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또 같이 이겨내고 성장함’, ‘상담수련 및 법률적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재구성하였고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의 수련경험을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 수련경험, 조선족, 비조선족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02-2123-6171, E-mail: seox0004@yonsei.ac.kr

2021년 국내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0,018명으로 7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 중국인 유학생들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교육부, 2020). 국내 상담전공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통계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최근 들어 상담전공 유학생을 비롯하여 상담 관련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 수련생과 대학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외국인 상담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담전공 유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 및 임상 분야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Peterson, Briggs, Dreasher, Horner, & Nelson, 1999), 유학생, 외국인노동자 등 기존의 상담 취약계층이 상담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Atkinson & Lowe, 1995). 또한 상담전공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국의 정신건강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고,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등 상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Clawson, 2004). 이처럼 국내에 상담전공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험이 유학생 개인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담전공 유학생들의 수련경험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수련과정(학위과정 및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Ng, 2006), 정교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에서(Perrucci & Hu, 1995)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한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오자마자 기숙사 배정, 은행 계좌 개설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언어장벽의 문제를 경험하고, 학업과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무력감, 외로움과 향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김성혁, 최혜정, 김수진, 2012). 한편, 국내 상담전공자들은 학위과정 외에도 상담실습,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 교육분석 등을 포함한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는데(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 상담수련과정에서 새로운 수련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나 초보상담자로서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채순옥, 최혜란, 2015), 슈퍼바이저와 소통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거나(조운진, 이은진, 유성경, 2014), 불확실한 진로 때문에 갈등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다(채순옥, 최혜란, 2015). 이처럼 학위과정 외에도 집중적인 상담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담전공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생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국내 상담전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련하는 상담전공자들이나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에 재학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구어(Mittal & Wieling, 2006), 문어(Chen & Van Ullen, 2011) 사용 시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Behl, Laux, Roseman, Tiamey, & Spann, 2017).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수업 중에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읽기·쓰기 과제의 비중이 높으며, 발표에 대한 요구가 많

은 등 본국과 다른 미국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Behl et al., 2017). 또한 수퍼바이저에게 요구 사항이나 고민을 말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고(Killian, 2001), 상담전공자로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상담사로서 전문성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Fuertes, Potere, & Ramirez, 2002; Mittal & Wieling, 2006). 한편, 상담전공 유학생들은 문화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단기간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초반의 설레는 단계를 지나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감 등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Black & Mendenhal, 1991; Mittal & Wieling, 2006). 교수진과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도 문화적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문화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고립감을 느꼈으며, 교수진이나 수퍼바이저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거나 편견이 섞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이처럼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상담전공자나 박사과정생으로 한정되거나 학위과정 또는 수퍼비전 경험에 국한해서 현상을 다루는 등(Behl et al., 2017; Chen & Van Ullen, 2011; 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상담전공 유학생들이 거치게 되는 수련과정 전반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담사의 전문성은 수련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Skovholt & Ronnestad, 1992). 특히,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충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식 습득 위주의 대학원 교과과정과 수퍼비전을 포함한 상담실습은 모두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최해림, 김영혜, 2006). 따라서 참여자들의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이들의 전문성이 발달해가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의 경험을 확인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Ximei (2020)는 재한 중국인 상담사 4명(조선족 2명, 한족 2명)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되기 전부터 상담사로 살아가는 현재까지의 경험이 참여자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외국인 상담사로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통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사로서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이 개인의 연속적인 삶의 맥락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상담사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험이 갖는 유의미성을 발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련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광열과

하정희(2021)는 중국인 상담사 10명(조선족 5명, 한족 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합의적 질적 방법(CQR)으로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수퍼비전, 교육분석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재한 중국인 상담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여 전문직 정체성 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국인 상담전공자로서 학위과정 경험이나 수퍼비전에서 한국인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 대다수의 상담전문가들이 상담심리 교과 과정을 설치한 대학의 석박사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만큼, 학위과정은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수퍼비전은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다(Holloway, 1995).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수련생과의 수퍼비전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Killian, 2001),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한국인 수퍼바이저에게 지도받은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효과적인 수퍼비전과 상담수련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인 중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중국어와 중국 조선어를 사용하는데, 조선어가 한국어와 같은 체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탁정, 2018). 비록 한국어와 조선어는 억양, 어휘 등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인과 대화하는데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다. 반면, 조

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유학하면서도 한국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신선희, 유문무, 2014). 의사소통을 위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 한국어 구사력의 차이는 수련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제반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선족과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의 실제 수련경험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대학원 과정과 상담수련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의 민족적 배경 및 언어 구사 능력을 고려하여 조선족 출신과 다른 민족 출신(비조선족 출신)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수련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어떤 혜택과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상담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중국인 상담전공 유학생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수련과정에서의 경험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그 의미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 상담전공자와 비조선족 출신 중국인 상담전공자들 간에 어떻게 다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모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상담전공자를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상담전공 대학원 학위과정과 상담수련을 경험한 자’로 정의하였다.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과 실무 중심의 상담수련과정을 모두 경험한 참여자들을 선발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개인상담,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 워크숍 등 수련과정 전반을 경험해본 참여자들이 상담 전공생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그 의미를 풍성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Creswell & Poth, 2018).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상담전공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중국인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연구 목적과 취지, 참여 방법 등을 포함한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고, 면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지인과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Gall, Gall, & Borg, 2003)을 함께 활용하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할 경우 연구자들이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학력, 국적, 상담실무경험 등이 참여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SNS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11명의 중국인들이 연구에 참

여했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0.55세(범위 = 25-36세)였고, 평균 상담경력은 3년 11개월(범위 = 1년 3개월-10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부 전공을 살펴보면, 3명은 중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3명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으며, 4명은 중국에서 타전공을 공부했고, 1명은 한국에서 심리상담치료를 공부했으며, 2명은 학부 때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었다. 11명의 참여자 중 8명은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명은 상담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며, 1명은 상담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족은 6명, 조선어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조선족은 4명, 몽골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몽골족은 1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참여자들은 2명, 구직 비자 2명, 거주 비자 1명, 동반 비자 1명, 재외 동포 비자 4명, 영주 비자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은 6년 11개월(범위 = 2년 9개월-11년 8개월)이었고, 한국어 사용 기간은 한족, 몽골족 참여자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과 거의 일치하여 평균 7년 3개월(범위 = 3년 9개월-11년 8개월)이었고, 조선족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연령과 동일하게 나타나 평균 31년 9개월(범위 = 25-35년)이었다. 상담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4명이었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상담심리사 2급(2명), 임상심리사 2급(1명), 청소년상담사 2급(1명), 놀이치료사 1급(1명), 아동심리치료사 2급(1명)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학상담기관, 사설상담기관 등에서 실무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수련 지역은 서울 10명,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학부 전공 (지역)	민족	모국어	한국어 구사 능력	비자 종류*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사용 기간	상담 경력	상담 내담자	자격 종류	수련 기관	수련 지역
1	30	여	심리학 (중국)	몽골족	몽골어, 중국어	상	D10	5년	5년	2년 5개월	한국인, 중국인	무	대학상담기관	서울
2	25	여	한국어 (중국)	한국	중국어	상	D2	3년 6개월	6년 6개월	1년 6개월	한국인, 중국인	무	대학상담기관	서울
3	35	여	심리학 (중국)	한국	중국어	상	F5	11년 8개월	11년 8개월	5년 11개월	한국인, 중국인	임상심리사 2급	기타	서울
4	26	여	한국어 (중국)	한국	중국어	상	D10	3년 9개월	3년 9개월	3년 3개월	중국인	무	대학상담기관	충청
5	36	여	민족학, 생태학 (중국)	한국	중국어	상	F3	7년 11개월	7년 8개월	1년 6개월	중국인	무	대학상담기관	서울
6	28	여	심리상담치료 (한국)	한국	중국어	상	F2	9년 10개월	9년 10개월	2년 10개월	한국인, 중국인	최초년상담사 2급	대학상담기관	서울
7	29	여	한국어 (중국)	한국	중국어	상	F4	6년 1개월	6년 1개월	4년 1개월	한국인, 중국인	상담심리사 2급	대학상담기관, 사설상담기관	서울
8	34	여	심리학 (중국+교환)	조선족	조선어, 중국어	상	D2	6년	34년	10년	한국인, 중국인	무	대학상담기관	서울
9	25	여	신문학 (중국)	조선족	조선어, 중국어	상	F4	2년 9개월	25년	1년 3개월	한국인, 중국인	불이치료사 1급, 아동심리치료사 2급	사설상담기관, 복시센터	서울
10	35	여	관리학 (중국)	조선족	조선어, 중국어	상	F4	11년	35년	5년	한국인, 중국인	무	대학상담기관	서울
11	33	여	경영학 (중국+교환)	조선족	조선어, 중국어	상	F4	8년 7개월	33년	6년 1개월	한국인, 중국인	상담심리사 2급	대학상담기관, 사설상담기관	서울

주. *비자종류: D2(유학), D10(구직), F2(거주), F3(동반), F4(계의통포), F5(영주).

충청도 1명이었다. 참여자들 중 9명은 중국인 내담자와 한국인 내담자를 모두 상담했고, 2명은 중국인 내담자만 상담한 경험이 있었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한국인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질문지 제작과 심층 면접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우선, 상담전공 유학생, 재한 중국인 유학생, 상담수련생 대상 선행연구(민진영, 2013; 박응식, 2018; 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 이유경, 2014; 채순옥, 최혜란, 2015; Behl et al., 2017; Knox, Schlosser, Pruitt, & Hill, 2006; Mittal & Wieling, 2006; 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Schlosser, Knox, Moskovitz, & Hill, 2003)를 참고해서 연구문제를 구체화하였고, 이를 반영한 면접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이 제작한 질문지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연구물을 출판한 상담전공 교수 1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인 상담자 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한 후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물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 2인에게 인터뷰 질문지가 연구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는지, 내용 및 구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최종적으로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실

제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세부적으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선생님께서 대학원과정 및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이고 세부 질문은 표 2와 같다. 면접을 종료하면서 참여자들이 수련과정 중에 느꼈던 개선책과 보완점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상담기관 내 상담실이나 거주 지역 인근의 스터디룸 등에서 진행하였다. 면접 당일 진행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은 90분에서 120분가량 소요되었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접 종료 후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연구자들은 면접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기호 또는 숫자로 표기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자들은 중국인 상담전공 유학생들의 수련경험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Giorgi (202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해석보다는 ‘현상 자체’에 대한 기술을 강조하는 Giorgi(2020)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은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상담사의 상담수련경험(박응식, 2018; 이상학, 서영석, 2017; 채순옥, 최혜란,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

표 2. 면접 질문 영역 및 내용

영역	면접 질문 내용
상담전공 대학원 경험	<p>선생님께서 외국인으로서 상담전공 대학원에서 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전공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동기, 기대, 걱정) • 상담전공 대학원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업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상담전공 대학원 구성원들(교수진, 선후배, 동기 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상담수련경험	<p>선생님께서 외국인으로서 상담 실습 및 상담수련 현장에서 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실습 및 상담수련을 시작하기 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동기, 기대, 걱정) • 상담 실습 및 상담수련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상담 실습 및 상담수련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수퍼바이저, 동료수련생 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개인상담/집단상담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수퍼비전/공개사례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기타 상담 실습 및 상담수련 활동(교육분석, 워크숍, 학회 등)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수련경험의 의미	<p>지금까지 상담전공 대학원과 상담 실습 및 상담수련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것들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과정에서 상담사로서, 또한 개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 중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2) 변화 중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3) 변화 중에서 안 좋아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 외국인이어서 오히려 성장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외국인이어서 특히 제한되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의 자기 발달 경험(이미정, 박승민, 2015), 미국 내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의 상담수련경험 (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등 상담전공자들의 수련경험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상담사들의 수련경험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먼저 참여자들이 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후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는 순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3개 영역(상담전공 대학원 경험, 상담수련경험,

수련경험의 의미)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전공 대학원 경험에 관한 영역에서는 입학하기 전 경험(동기, 기대, 걱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는 상담 입문 동기에 대해 질문한 선행연구(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를 참고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전공 대학원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문은 이상학과 서영석(2017)의 상담전공 대학원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참고하였다. 상담수련경험 영역에서 수련하기 전 경험(동기, 기대, 걱정)에 대한 질문은 선행연구(채순옥, 최혜란, 2015; 박응식, 2018)에서 활용한 ‘상담수련을 선택한 계기와 상담수련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상담수련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관계, 상담, 슈퍼비전, 기타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박응식, 2018; 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 채순옥, 최혜란, 2015; 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의 질문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수련경험의 의미 영역에서는 상담사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 아쉬운 부분, 오히려 안 좋아진 부분 등 변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는 수련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질문한 연구(이상학, 서영석, 2017; 박응식, 2018)와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질문한 연구(박응식, 2018)를 참고하였고 질문을 더 확장하여 외국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유리한 점과 제한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자로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과 후배들에 대한 조언에 대해 답하도록 한 선행연구(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마무리 질문으로 외국인 상담수련생들을 위한 제

언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을 위해 이남인(2014)이 기술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참고하였고, 자료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판단중지와 괄호치기 과정을 거쳤다(Creswell & Poth, 2018). 자료 수집 당시 연구자 중 한 명은 재한 중국인으로서 상담전공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1년간 상담실습 및 상담수련과정에 참여하였고, 또 다른 연구자는 한국인으로서 상담전공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8년 정도 상담수련에 참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수시로 논의하고 선입견과 선가정을 반성하면서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류하고 대신 참여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면접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다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감각을 얻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부분적인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체 참여자들의 자료로부터 도출된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하고, 중첩되는 동일한 의미단위를 통합하면서 참여자들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를 확보하고 번호를 부여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차원의 언어, 즉 학술적인 용어로 전환하면서 일반적인 의미범주를 파악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 즉 각 의미단위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하면서 일반적인

학술적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이남인, 2014).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면서 현상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구분한 후 유사한 의미단위는 삭제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1255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고, 의미단위 간 연관성을 바꿔서 파악하고 재배열한 후 학술적인 용어로 전환하여 총 776개의 의미단위를 확정하였다. 도출된 의미단위들은 원자료에 근거해서 전체 참여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는 순환적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5개 영역, 15개 구성요소, 29개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하였고, 구조적으로 통합한 후 두 개의 구조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구조는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을 사례별로 비교하여 서술하는 상황적 구조이고, 두 번째 구조는 상황적 구조의 개별적 기술들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관련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일반적 구조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학위과정 및 상담수련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상황적 구조의 개별성을 포괄하는 본질구조로 재구성하였다(Giorgi, 2020).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연구자들은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네 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우선, 연구 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담전공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2명의 참여자(조선족, 비조선족 각 1인)에게 면담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본인들의 경험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에 맞는 참여자를 섭외하려고 노력했고, 심층 면담을 통해 녹음된 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중국인 상담전공 유학생 2명(조선족, 비조선족 각 1인)에게 연구 결과를 읽게 하여 본인의 경험이 연구 결과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물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 1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토론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아래에서는 11명의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한 자료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상황적 구조 진술과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담은 일반적 구조 진술 순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의 수련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 진술

연구자들은 상황적 구조를 참여자의 생생한 진술과 함께 5개 영역, 15개의 구성요소와 29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하여 진술하였다. 각각의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

표 3. 수련경험의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

영역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1. 한국에서 상담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입학 전 느낀 복합적인 심경	1)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	- 상담에 흥미를 느껴 상담전공을 선택함 - 상담 분야가 발전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함
	2) 학업 및 상담수련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함	- 학업 및 상담실무에서 배움에 대한 기대 - 학업 및 상담실무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
	1)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함 - 외국인이 상담수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2. 학업과 상담수련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2) 낮은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 처음 접한 전공과 대학원 수업방식이 낯설고 부담됨
	3) 관계에서의 어려움	- 소외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 낮은 대인관계 방식과 규범에 적응해야 함
	4) 문화적 배경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한국인 내담자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부족함 - 중국과 관련된 몰이해 및 편견으로 인한 불편감 - 중국인 내담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슈퍼바이저가 부족함
	5) 상담실습 및 실무에서의 어려움	- 상담 장면에서 국적을 밝히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 - 한국인과 특성이 다른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이 어색함 - 내담자 모집부터 힘든 사례 담당까지 혼자 짊어져야 함
	6) 경제적 부담	- 제한된 소득과 상담수련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낌
3. 외국인 전공자로서 혜택을 경험함	1) 외국인 전공자로서 배려를 받음	- 외국인으로서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배려를 받음 - 슈퍼비전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격려해줌
	2) 외국인 상담사로서 기회를 얻음	- 부족한 경력에 비해 중국인을 상담할 기회가 있음
4. 수련경험의 의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또 같이 이겨내고 성장함	1) 자기돌봄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	- 정서적, 신체적 소진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함 - 상담역량이 여전히 부족함으로 상담수련을 지속해야 함
	2) 이겨낼 수 있는 힘	- 동기/동료수련생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이겨냄 - 마음속 목표와 초심이 원동력이 됨
	3) 변화와 성장	- 상담과 교육분석을 통해 개인적 이슈가 회복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함 -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 노하우가 생기면서 전문성을 가짐
5. 상담수련 및 법률적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	1)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 자격증 취득 시 특수상담 사례를 인정하는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비자 연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2)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확보의 필요성	-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함 - 교육시스템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함

한국에서 상담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입학 전 느낀 복합적인 심경

이 영역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전공을 선택하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 학업 및 상담수련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걱정 등 다양한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영역을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와 ‘학업 및 상담수련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함’ 2개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계기로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상담 및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들었거나, 집단상담,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상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상담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스스로에 대한 치유를 기대하면서 상담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학부 2학년 때 중국에서 교양수업으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되게 흥미가 있어서 그 뒤로부터 상담, 심리학과 수업을 많이 찾아 들었어요. 그리고 OO 대에 교환학생 오면서 교양수업으로 상담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을 들었는데 계속 재밌고 흥미가 있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유학 와서 석사 공부해도 괜찮을지 여쭙봤어요. 근데 지지해주면서 좋다고 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진로를 이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참여자 11 (조선족)>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지인 추천으로 상담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진로가 막막할 때 중국에서 한국인 상담전공 교수님이 주최하는 드림 캠프에 참여하면서 아빠가 변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힘들지 않게 치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부 때는 한국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진행한 특강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상담 공부를 조금씩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치유를 받고 싶은 것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9 (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의 상담교육과정이 우수하고 학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음을 인지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언어적인 친숙함이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부터 한국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았다. 조선족의 경우 어릴 때부터 조선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비조선족의 경우 또한 학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고 중국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서양 이론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좀 더 수월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했어요.” <참여자 6 (비조선족)>

“다른 나라는 제가 언어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상담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는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언어적인 문제가 많이 걱정되고 한국어로 공부하면 제가 심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어가 되는 한국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조선족)>

학업 및 상담수련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함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다수의 참여자들은 상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에 목말라 있었고, 상담 관련 지식과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또한 상담 관련 이론과 지식을 배운 후 상담 실무를 통해 어떻게 상담 장면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내담자를 직접 만나 상담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경험도 쌓고 학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상담 공부는 사람에 대한 이해잖아요.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참여자 11 (비조선족)>

“직접 내담자를 만나는 기대? 검사에 대해서 배운 것들과 이론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되게 기대가 됐고요. 설레고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학부에서 상담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상담전공자들에 비해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뒤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내담자에게 적용해보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가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지, 한국어 때문에 전문성이나 신뢰를 잃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등을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스스로 한국어가 서툴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및 상담수련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학부 때 한국어 전공이었는데 상담전공 친구들보다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상담이 아무래도 한국어로 얘기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케이스를 받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고, 힘든 내담자가 왔는데 내가 제대로 상담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어요.” <참여자 2 (비조선족)>

“그때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소심하고 불안했고. ‘내가 상담이

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해줄 수 있을까? 한국 상담사처럼 내담자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학업과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과 상담수련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보고한 어려움을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낮선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문화적 배경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상담실습 및 실무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구분하였다.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학업을 수행하고 수련과정을 거치는 동안 언어와 관련된 어려움을 다양하고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조선족 참여자들도 언어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뿐 아니라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언어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수업을 듣고,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었다. 특히, 중국어로 영어를 배운 참여자들이 영어 논문과 원서를 읽고 한국어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업에서 놓친 부분이 많았다. 수퍼비전과 공개사례발표에서는 한국어로 발표하거나 질문할 경우 명확히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한

국인 내담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책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국인 내담자와 중국어로 상담을 진행했을 경우 상담한 내용을 중국어로 전사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후 사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러한 이중의 작업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소모하게 했다.

“일단 처음에 다 언어가 부족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한 챕터 보는데 다른 친구들이 한 시간이면 저는 하루 종일 봐야 할 것 같은.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완성하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고 한국어에 영어도 다 섞어서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거쳐서 이해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수업을 듣는 데 60%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스피드와 교수님의 언어 이런 게 더 어려웠어요. 너무 스트레스받고 어려웠어요. 한국말로 발표하는 것과 정리해서 ppt를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중략) 그리고 다 중국인 사례인데 중국어로 적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간단한 문서 번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어떻게 실수했고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과정이 진짜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이 두 시간 동안 축어록을 푼다면 저는 6~7시간 걸리고 상담 진행 당시 정서가 또다시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제가 사례를 보고 ‘힘들다, 어려웠다, 무섭다.’라고 수퍼바이저한테 말씀드려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고 부정적인 정서가 억압되면서 스스로 흡수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참여자 1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경험한 언어적인 장벽은 상담수련의 기회를 구하는 문제, 상담 자격증 취득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제, 그리고 상담기관에 상담사로 지원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에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상담수련 기관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반면,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조선족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상담수련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수련기관을 찾았다고 해도 주로 중국인 내담자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상담 경험이 제한적이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불안과 조급함을 느꼈다. 결국,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인식했고, 상담기관에서 중국인 상담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상담경력이 부족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가 사례를 못 받고 있었어요.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아예 못 받고 한 명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서 한국 내담자 사례를 하나 받았거든요. 저는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한국인 수련생들이랑 차이 없이 바로 사례를 시작했어요. 중국 학생들이 상담을 공부하러 많이 오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면 실습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상담이라는 게 글공부뿐만 아니라 실습도 하고 수퍼비전도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담사로 커가는 방법인데 이걸 할 수 없어서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8 (조선족)>

낮선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참여자들은 발표와 토론 중심의 수업 방식이나 언어를 중시하는 등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보고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부담인 참여자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수업 방식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니까 적용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다른 점이 진짜 많았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수업만 듣고 시험 보고 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고 상담 실습, 수퍼비전, 공개사례발표 등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비조선족)>

“각자 공부해야 하고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ppt로 발표해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부담됐고요. 어쨌든 내가 접해보지 못한 방식이니까. 방식도 너무 낯설었는데 내용까지 숙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

화해야 하니까 더 힘들었죠.” <참여자 7 (비조선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대학원 동기나 선후배를 포함한 동료수련생이나 교수진과의 관계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우선, 참여자들은 한국인 상담전공자 또는 타 수련생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친해지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꼈다. 또한 대화 코드가 맞지 않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고 간혹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알기 힘든 주제로 대화할 때 외국인이라서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표현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낀 적이 많았다.

“외국 사람이라서 부탁은 많은데 제가 도움을 별로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소외감,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어요.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평등하게 친할 수 없잖아요. 도움만 요청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중략) 한국 문화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소속감이라고 생각해요. 유학생으로서 어떤 문화 밖에 있잖아요.” <참여자 1 (비조선족)>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농담인데 진짜 농담일까 아니면 진지하게 얘기한 것일까. 이런 포인트를 파악할 수 없는 타이

밍도 엄청 많았었고, 저는 새롭게 들어온 학생이라서 분위기에 잘 융합할 수, 잘 들어갈 수 없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중략) 사건들을 통해서 중국인한테 편견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리를 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한국인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참여자 4 (비조선족)>

또한 참여자들은 중국에서와는 다른 대인관계 방식 때문에 선후배나 교수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선후배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역할, 호칭 등 낮은 대인관계 규범에 노출되었는데, 학기가 높아질수록 선배다워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경직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선후배 관계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화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나이도 한 살까지 신경 써야 하고. 애매한 것 같아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럴 때 있어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에서 후배는 이래야 되고 선배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동기들보다 좀 부담을 덜 느꼈었어요. 나중에 저도 적응되어서 행동을 많이 조정하긴 했지만. (중략) 지금은 선배다워야 하고 선배의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마음이 되게 모순적이에요.” <참여자 10 (조선족)>

문화적 배경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참여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 수퍼비전을 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다른 한국인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조선족 참여자들과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교육, 경제 등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의 정서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학교문화, 수능제도, 취업문화, 취업 시스템 등 문화적 규범과 가치가 구현된 현실적인 제도와 그 안에서의 내담자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문화적인 게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경제 등 환경과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중국인 수준에서 한국인 내담자를 보면 안 되겠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제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더 커요.” <참여자 1 (비조선족)>

“한국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 친구들이 과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살았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고 교육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배경을 설명할 때 제가 잘 모르니까 내담자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살아왔던 경험이나 정서적인 경험은 비슷한데 현실적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몇몇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중국과 관련된 말을 할 때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중국에 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으며, 한중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요구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가끔 중국에 대해서 잡담하거나 그럴 때 약간 신경이 쓰이고. 장난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실 때 장난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살짝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중략) 무심코 던진 그런 말 때문에 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참여자 2 (비조선족)>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수퍼비전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로 인해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중국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수퍼비전을 받을 때 수퍼바이저가 내담자 개인적인 특성뿐 아니라 호소문

제와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퍼바이저들이 중국인 내담자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간과한 채 한국인 내담자와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내담자들의 경우 정서적으로 내면에 접촉하는 과정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데 비해, 중국인 내담자들은 인지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시각이나 교육시스템 또한 다르며, 중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느꼈다.

“주수퍼바이저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주수퍼바이저들은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다문화 상담 관련 주제로 공개사례발표를 할 때 수퍼바이저가 문화적 차이에 포커스를 두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다른 수퍼비전은 도움이 전혀 안 됐던 건 아니고 내담자 개인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대부분은 문화 상관없이 개인으로만 보고 수퍼비전을 하셨어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실습과정에서 다문화 상담을 주로 하는 수퍼바이저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을 상담할 때 문화적인 요인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거를 잘 캐치해서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영향을 구별해서 봐주시는 수퍼바이저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

려면 한국문화와 중국문화를 잘 아셔야 하고 개인적인 특성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중략) 중국인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 반응을 한국인 내담자와 똑같이 봐주시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반응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걸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한 내담자가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의 선후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사례 개념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참여자 10 (조선족)>

상담실습 및 실무에서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상담 실습이나 실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국적을 한국인 내담자에게 개방하는 문제, 한국어로 배운 상담기법과 개념을 중국인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의 어색함과 부적합성, 중국인 상담을 혼자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포함된다. 우선,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에게 자신의 국적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한국인 내담자에게 개방할 경우 상담사로서의 전문성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라서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부분을 내담자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였다.

“내담자한테 제가 외국인이어서 한국

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질문이 많을 거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편하긴 한데 과연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되고 제가 저를 의식하게 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오픈 안 했을 때는 발음도 신경 쓰이고, 요즘 사용하는 줄임말을 물어볼 때도 신경 쓰이고 그런 거 좀 있어요. 내담자와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럼 상대방이 저를 전문가로 믿어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0 (조선족)>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중국인 내담자를 만날 때 한국인 내담자보다 더 편하게 느끼고 덜 긴장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한국어로 배운 상담기법이나 접근을 중국인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 더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내담자들은 인지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데, 참여자들이 내담자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내면을 접촉하려고 시도할 때 부자연스럽고 상담 진행이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한국어로 물어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뭔가 중국인 내담자를 만날 때는 좀 잘 안 만나지거나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인 내담자한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 내담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는데 중국인 내담자는 물어보면 애매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

요.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내담자는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인 내담자들은 생각과 사고를 많이 해요. (중략) 사실 처음에 중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원래 모국어여서 더 쉬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상담을 다 한국어로 배웠으니까 질문하거나 사례개념화 할 때도 다 한국어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대화할 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참여자 2 (비조선족)>

몇몇 참여자들은 소속된 기관에서 유일한 외국인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내담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수퍼비전을 받는 것까지 많은 상담 관련 업무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중국인 내담자를 혼자서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심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중국인 내담자를 상담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외국인 상담사를 구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상담 세팅이 없어서 상담 홍보 공지 글부터 써서 올리고 (웃음) 메일 홍보하고 신청서도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지. 홍보, 사례, 수퍼비전도 혼자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하고.” <참여자 11 (조선족)>

“상담하는 내담자 중에 혹시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항상 걱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생의 위기는 한국 학생의 위기 상황이란 좀 다르게 부모님이 곁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이 쓰이나 봐요. 사실 위기가 두 번 정도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경제적 부담

참여자들은 제한적인 소득과 수련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체류자격별 규정(하이코리아, 2022)에 따라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정해진 취업 활동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급 상담사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졸업한 후에는 상담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고 상담수련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지 않는 이상 학생으로서 학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 돈이잖아요. 개인분석 받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참여자 7 (비조선족)>

“어찌 보면 상담사로서 성장은 했지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상담 일만 해서는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파트타임 하고 있는데 처우가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는 유학생 비자라서 D2였거든요. D2일 때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다 받아야 하고 국세청에 올려야 하니까 시간제 취업을 신청하는 데 한 달씩 기다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컸어요.” <참여자 9 (조선족)>

외국인 전공자로서 혜택을 경험함

많은 참여자들은 상담을 전공하고 수련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 도움과 배려를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외국인 전공자로서 배려를 받음’과 ‘외국인 상담사로서 기회가 주어짐’ 두 개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외국인 전공자로서 배려를 받음

참여자들은 학업, 대인관계, 수퍼비전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인식했는데, 우선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한국인 학생들이 설명해 주거나, 보고서 작성과 발표 자료 준비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고, 연구를 진행할 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학업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선배들이 챙겨주었고, 한국인 학생들에 비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수진은 참여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이해해주고 노력한 것을 지지해주었으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 주었다. 한편 참여자들 중에는 그룹 활동에서 쉬운 역할을 맡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였음을 깨달았다고 보고했다. 예, “외국인이라서 교수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봐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저를 생각해주셔서 봐주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차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외국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았어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업할 때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같이 앉아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설명해 주시고 발표할 때도 같이 만들어서 기회를 많이 주셔서 좋았어요. (중략) ‘상담하는 건 어려운 거 없냐?’라고 신경 써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인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참여자 5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수퍼바이저로부터 공감과 격려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퍼바이저는 축어록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수퍼비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참여자들의 수고를 인정해주었다. 참여자들은 부족한 상담이지만 칭찬받고 격려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수퍼바이저를 의지하면서 성장하였다.

“다른 한국인 상담사한테 수퍼비전을 한 시간 해주시면 저한테는 두 시간 정도 해주셨어요. 똑같은 비용에. 사례뿐만 아니라 저의 적응 문제, 불안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해주시고. 심리검사 해석과 다른 부분도 진짜 많이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수퍼비전 받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았어요. (중략) 저의 걱정이라든 불안 이런 많은 고민을 다 풀 수 있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수퍼비전 끝나면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상담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정상적이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계속 피드백 받았어요.” <참여자 1 (비조선족)>

“되게 잘 해주셨고 상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수퍼비전을 하고 나서 저한테 ‘상담은 이런 거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수퍼바이저와의 어떤 일대일의 만남, 그런 수퍼비전을 통해서 상담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중략) 제가 수퍼비전 자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 ‘되게 고생스럽게 만드셨다.’ 이렇게. 왜냐면 중국어로 상담하고 다시 다 들으면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니까. 제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여자 7 (비조선족)>

외국인 상담사로서 기회를 얻음

참여자들은 자격증이 없고 상담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이를 혜택이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다수의 참여자들은 중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유학생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내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담 관계에 더 몰입하며 내담자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유학생들 상담할 때 사실 자격이 아직 미달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지금 자격증이 없어도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10 (조선족)>

“저도 유학할 때 힘들었고 중국인 내담자들과 유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친숙한 부분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도 좀 이해되고. (중략) 내담자들도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 중국인 상담사라서 더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고 중국어로 얘기하니까 동질감을 많이 느끼죠.” <참여자 11 (조선족)>

수련경험의 의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또 같이 이겨내고 성장함

참여자들은 내담자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함에 압도당하고, 소진되어 가는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바쁘고 부담스러운 수련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련경험은 자기돌봄의 중요성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상담전문가가 되겠다는 초기 목표와 이후 동료수련생들의 지지가 수련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닫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내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전문가로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또한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기돌봄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겨낼 수 있는 힘’, ‘변화와 성장’으로 구분하였다.

자기돌봄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

참여자들은 학업과 상담수련이 주는 부담감에 ‘압도’당하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소진되어 가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느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주요 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런 도전과 분투가 오히려 시간 관리, 적절한 거리두기 등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힘든 줄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힘들고 아팠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 챙기면서 해야겠다. 수련받는 상담전공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챙기라고 하고 싶어요. 분석 받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만나면 ‘나도 힘들었었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고, 교육분석 받으면서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을 같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비조선족)>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돕고는 싶은데 여유는 없고 이런 것들이 괴로운 것 같아요. 도우면 상담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참여자들은 힘든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상담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천차만별인

내담자들의 특성과 문제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 데 부족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결국, 참여자들은 상담기술과 상담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슈퍼비전을 병행하는 등, 상담수련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는데 이는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상담 경험이 진짜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느낌이 들고 내담자 특성에 따라 상담 스타일도 바뀌어야겠다는 느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야 할지 파악하는 건 여전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데 여전히 명료하지 않아요. (중략)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이론적인 부분과 새로운 상담기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다 아쉬운 거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전문성 부분. 케이스마다 새롭고 다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힘든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지?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해요. 슈퍼비전도 계속 받아야 해요. 그때그때 만나는 학생에 따라 도와주려면 또 슈퍼바이저 찾아가고, 인지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면 그쪽으로 공부하고, 트라우마 경험이 영향을 미치면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참여자 11 (조선족)>

이겨낼 수 있는 힘

참여자들은 주변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배려가 수련과정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우” 같은 동기나 동료수련생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냈다. 참여자들은 많은 시간을 동기나 동료수련생들과 함께 보내고, 사소한 것부터 함께하며, 고민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힘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동기나 동료수련생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이들이 수련과정에 적응하는 데도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가 힘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료수련생들은 전우 같은 느낌이었고 저희가 소그룹 슈퍼비전을 계속하거든요. 서로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초심상담사로서의 힘든 부분들을 함께 의지하고 얘기 나누면서 공유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가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8 (조선족)>

“동기 두 명이 있었는데 매일 같이 밥 먹고 수업 듣고 이래서 혼자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어요. (중략) 동기들과 관계는 되게 좋았고 저랑 계속 친구 해줬으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고맷게 생각하고 있어요. (울컥) 그니까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계속 옆에 있었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힘이 되지 않았나. 함께 한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산책하고 밥 먹는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국적이거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참여자 10 (조선족)>

참여자들이 마음속에 지녔던 초심과 상담을 전공하면서 구체화한 목표는 이들에게 수련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는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많은 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 상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는데, 이들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에서 적성을 발견하고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전문가들을 보면서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수업 과정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만났던 교수님들 다 너무 좋았고 특히 실습 과정에서 아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수련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생겼어요. (중략) 중국인 내담자들은 다 저보다 어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과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옆집 언니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사로서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내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 시간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여자 1 (비조선족)>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어렵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뭐라도 남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의미가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비조선족)>

변화와 성장

제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에게 수련경험은 개인으로서나 상담사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상담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상담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장하였고, 특히 교육분석을 받으면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등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타인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대인관계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유학생으로서 힘든 학업과 수련과정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로 자신의 성장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있게 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내 감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어요. 내담자와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는 스스로 상담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웬만한 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구든지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배우자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자 8 (조선족)>

“교육분석을 받으면서 상담할 때 저의

모습을 더 편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특히 불편했던 내담자를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했고, 워크숍 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교육분석으로 많이 성장했고 내담자를 만날 때도 더 도움이 되었어요. (중략) 그리고 남편과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참여자 3 (비조선족)>

참여자들에게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상담 전문가로서 변화하고 성장한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생겼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커졌다. 예를 들어, 몇몇 참여자들은 대학상담센터에서 중국인 내담자를 전담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커졌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방법이나 기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의 효능감과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상담하면서 이제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걸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진짜 닥치는 대로. 그때는 되게 불안이 높았는데 지금은 내담자한테 뭘 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여유. 상담하면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담자들의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

는 부분이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8 (조선족)>

“처음보다는 크게 당황하는 일들이 줄었어요. 위기 사례가 오면 센터랑 같이 회의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대략 좀 익숙해요. (중략) 유학생들의 전체적인 고민이 이해되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1 (조선족)>

상담수련 및 법률적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하면서 상담자격 제도와 비자 문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확보의 필요성’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우선, 참여자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취득 요건에서 외국어 상담을 특수 상담으로 분류하고 실제 진행한 사례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몇몇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이 기준으로 인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이를 외국인 상담자들에 대한 차별로 지각하였다. 즉, 중국인 상담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수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중국인 내담자를 중국어로 상담하고, 축어록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담자의 문화적인 요인까지 반영한 후 수퍼비전을 받는 등 추가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을 일반상담과 동일하게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자격제도에서 외국인 사례를 특별상담으로 인정하는데 수퍼비전 자료를 똑같이 만들고 오히려 번역 과정도 있고 엄청 더 노력하고 소모하고 있어요. 지도 받는 것도 똑같은 선생님께 받는 거라서 오히려 1.5배로 인정을 해주어야 충분한 것 같아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더 많고 문화적인 부분도 추가로 생각해야 하니까요. 상담 자체는 똑같이 하는데.” <참여자 11 (조선족)>

참여자들은 졸업 후 비자 연장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활동에 제약이 크지 않은 반면,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상담사 직종으로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담과 무관한 일을 하면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다시 상담사로 일하거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보통 E7 비자 받거든요. 근데 상담사 직종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80여 개 직종이 있는데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없거든요. 저는 바꿨는데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일을 하면서 비자를 바꿨고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충족해

야 하거든요. 사실 한쪽은 졸업하고 나중에 취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여자 6 (비조선족)>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확보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중국인 상담사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원과 경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중국인 내담자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중국인 상담사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지체계 및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상담사들은 상담사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중요한 정보를 문서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학생 자살률도 좀 높은 편인데 상담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서로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위기 사례 같은 경우랑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 많으니까 대학시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물어본다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살 같은 위기 사례에 대처했던 상담사들의 경우에는 상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니까요.” <참여자 2 (비조선족)>

한편,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혼자서 답을 찾아야 했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대학원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정 및 준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특정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수업 과정이나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두 번이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와 시스템 때문에 어디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중략) 학회에서도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면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 (비조선족)>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의 수련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진술

지금까지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의 대학원 과정 및 상담수련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아래에서는 참여자들의 개별적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전체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의 의미구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기 전부터 상담 이론 중심의 학위과정을 거쳐서 상담실무 중심의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하기까지의 시간적 맥락과, 강의실, 연구실, 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간적 맥락 속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의 수련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특성을 비교·통합하여 진술하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중국에서 학부를 다니던 시절에는 다른 분야의 전

공을 선택하여 공부했지만 다양한 경로로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한국에서 상담 분야가 발전한 것도 유학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전공 지식 때문에 학업과 상담실무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상담은 처음 접하는 학문 분야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상담지식부터 배워야 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적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발표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 매주 주어지는 과제와 토론 등 다양한 수업 내용을 참여자들은 외국어로 소화해야 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책을 읽고 과제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표 자료를 만들고 직접 발표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부분들이었다. 하지만 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체계가 같은 조선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어와 억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민족의 중국인들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참여자들은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공통된 대화 주제가 적거나 대화하는 방식이나 코드가 맞지 않아 소통하기 어렵고, 유학생이라

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선배나 교수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르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잘 몰라서 부담을 덜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끔은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반면,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받았다. 예를 들어, 과제와 발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학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인에 비해 장학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학생으로서의 혜택도 있었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많은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상담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상담수련을 병행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이론으로만 배우던 상담기법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해보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였다. 특히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상담을 한다고 해도 내담자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염려가 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후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와의 상담과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는 한국인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국적을 밝히고 필요시에는 상담사를 바꿀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소통하는 데 제약을 느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더 긴장하거나 자책하기도 하였으며 교육, 대인관계,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한편, 조선족 참여자들은 세부적인 표현이나 억양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숙련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자신의 국적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상담이 종료된 후 밝히거나 밝히지 말아야 할지로 갈등하게 되었다. 자신의 국적을 밝혔을 때 내담자가 자신을 전문가로 인식할지 우려했지만, 내담자에게 문화적으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자신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내담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참여자들은 국적을 밝히는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결국 이들은 상황에 따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나름 고심하면서 선택하지만, 이에 대한 갈등을 여전히 경험하였다. 또한 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와 상담할 때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반면, 교육시스템, 문화적 규범 등 내담자의 현실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이 만난 한국인 내담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정서적인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중국인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자기 이해보다는 빠른 해결 방법을 원했고 자신의 정서에 접촉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서양에서 개발된 상담이론을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해석하여 이해하고 한국 문화에 맞는 상담기법과 상담 언어를 배우면서 상담 수련을 받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한국어로 배운 서구식 상담기법과 상담 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인 내담자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인 내담자와 상담할 때는 내담자와 공유하는 문화가 동일하고 유학생으로서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담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고 같은 중국인으로서 서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상담전공자들에게는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실습도 중요하지만 수퍼비전이나 공개사례발표와 같이 상담사 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활동도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주로 중국인 내담자들과 중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퍼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축어록을 중국어로 작성한 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여 수퍼비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중국어로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축어록을 작성하고 한국어로 사례개념화를 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수퍼비전에서는 수퍼바이저에게 한국어로 상담 내용을 전달하고 질문을 하는 등 수퍼바이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외국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들은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줌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얻고 수퍼비전에 의지하면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수퍼바이저들이 중국인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 내담자의 사례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

고 지도하는 데 참여자들은 아쉬움을 느꼈고,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모두 고려한 수퍼비전에 대한 요구를 보고하였다.

중국인 상담전공자들 중에서 조선족 상담사들은 한국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상담수련 기회가 많았던 반면 비조선족 상담사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담수련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재학 중인 대학의 상담센터나 교수와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외부 상담기관에서 중국인 유학생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수련할 수 있었는데, 상담경력이 적고 자격증이 없어도 중국어 상담을 할 수 있는 점은 유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어 능력과 상담경력이 부족하고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상담수련과정 혹은 중국인 상담사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더 많이 요구되었다. 또한 상담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처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동시에 유학생으로서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소속 기관에서 유일한 중국인 상담사로서 내담자 모집부터 위기사례 상담까지 중국인 상담 관련 업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배려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는데 이는 수련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외국인 상담전공자로서 당면하게

되는 도전에 대처하느라 정서적·신체적으로 소진되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 등의 상담역량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고, 앞으로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수련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수퍼비전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수련과정에서 ‘전우’ 같은 동기 및 동료수련생들과 의지하였고,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목표가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음을 인식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담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다. 또한 이들은 상담사로서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교육분석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였다.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우선, 상담전공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상담수련 요건에서 중국어 상담이 특수상담으로 분류되어 일부 사례만 인정받고 한국어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참여자들은 외국어 상담사례를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상담사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상담사라는 직종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계속 학업을 이어가면서 상담사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비자를 변경한 후 다시 상담사로 일해야 하는 열악한 고용환경에 직면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졸업 후 상담사로 일할 수 있도록 비

자 연장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소속 기관에서 혼자 중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교육시스템과 자격증 취득과정을 포함하는 상담수련과정 전반에서 외국인 상담전공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대학원 과정과 상담수련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1명의 참여자를 심층면접해서 얻은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5개 영역, 15개의 구성요소와 29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의 수련경험을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의 순으로 진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를 대학원 과정에서 중국인 상담전공자로서의 경험, 상담수련과정에서 중국인 상담사로서의 경험, 대학원 및 상담수련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로서 자기돌봄의 필요성 인식, 사회적 연계망과 성장을 위한 분투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경험

우선 참여자들은 학부에서 심리학 관련 수

업을 들으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꼈고 상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도움받았던 경험을 통해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이미정과 박승민(2015)의 연구에서 한국인 상담사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상처를 회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상담에 입문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국인 상담전공자와는 다르게 참여자들은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의 상담 교육 과정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담을 배운다면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이론 교육 중심인 대학원 과정에서는 다른 전공 유학생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한국인 상담전공자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선족과 비조선족 참여자들 모두 한국어와 영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특히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조선족 참여자들에 비해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유학 초반에는 수업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책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등 과제 수행에서도 많은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김선남, 2007), 미국의 상담전공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불안을 보고한 연구(Ng, 2006), 한국의 조선족 유학생들이 일상적인 언어와 학문적인 언어가 달라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연구(김정희, 김영순, 2018)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영

어를 중국어로 배운 참여자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중시하는 학업 분위기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위축되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중국인 상담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다.

둘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한국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는 문제로 인해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에 비해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주로 강의와 시험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학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처음 접하는 다양한 수업 방식들은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가 되었다. 특히 발표는 참여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당혹스러워하였다. 이는 국내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에 관한 연구 중에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Ng와 Smith(2012)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상담전공 유학생들이 본국과 상이한 교육시스템과 학습 환경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배려의 대상이 되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연구실 동기나 선배들은 학업과 생활면에서 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교수진은 이해와 지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학업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반면,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들었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주로 받는 입장이라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느꼈으며, 자신을 외부자로 인식하고 소속감을 느끼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의 상담전공 유학생들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동시에 미국인 동료와 교수들로부터 지지와 수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Mittal & Wieling, 2006). 본 연구결과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특히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국내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중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수련과정에서의 경험

상담실무와 관련해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국내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이나 해외 상담전공 유학생들의 경험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상담수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론으로만 배우던 상담을 직접 내담자를 만나 적용해보면서 자신의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수련경험을 통해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의 경험(박웅식, 2018)과 유사하다. 반면,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때문에 내담자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이 경험하는 상담 수행과 내담자 이해에 대한 걱정(채순옥, 최혜란, 2015)과 차이가

있다.

상담을 시작한 후,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인 내담자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때문에 표현하려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내담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교육, 경제, 사회 등 내담자와 공유하는 문화가 달라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반면에 조선족 참여자들은 비교적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용하는 어휘와 억양, 살아온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거나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학교문화, 진로진학 및 취업 과정과 같은 현실적인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Ng(2006)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Ng의 연구에서도 비서구권 국가 상담전공 유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권 국가 출신 유학생 및 미국 학생들보다 내담자와의 의사소통 장벽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권 국가 출신의 상담전공 유학생들 또한 영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어휘, 억양 및 구어 사용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수퍼비전이나 공개사례발표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수퍼바이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상담 초기에는 중국인 내담자를 더 편하게 생각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중국인 내담자에게 상담기법이나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어색했다고 보고하

였다. 한국인 내담자들은 감정 및 정서 중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하는 반면, 중국인 내담자들은 인지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내면에 접촉하려고 시도할 때 부자연스럽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배운 상담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적 체험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중국인 내담자들이 선호하는 즉각적인 문제해결이나 이를 위한 인지적인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집단의 규범 준수와 집단 구성원 간 화합을 중요시하는 등 집단주의 특성이 강하다(Wang & Lu, 2017).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하창순, 선헌연, 2010). 결국, 중국인 내담자들의 경우 정서 중심의 개인 내적 현상을 탐색하는 상담 접근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막막함을 느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Ximei, 2020)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슈퍼비전 및 공개사례발표 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슈퍼바이저로부터 도움을 받고 상담사로서의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슈퍼바이저들이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한국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중국인 내담자를 이해할 때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참여자들은 중국과 한국 양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내담자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인지적 사고 등의 문화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슈퍼비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에 관한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Ximei, 2020)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Sangganjanavanich와 Black (2009)의 연구에서 유사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한 외국인 상담사들은 슈퍼바이저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을 민감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상담사로서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더 지지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비전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얻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해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다양한 상담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슈퍼바이저로부터 외국인 상담전공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해 정서적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상담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재한 중국인 상담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곽열과 하정희(2021)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슈퍼비전을 비롯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 상담사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해 외국인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힘들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상담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슈퍼바이저로부터 고생한 부분에 대해 위로와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유창한 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이 한국인 상담전공자들과 동일하게 상담수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상담수련 기회가 적었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 내담자가 많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일부 중국인 동료들이 결국 수련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학위과정에만 전념하게 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사 자격요건으로 외국어 상담사례가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부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는 자격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담경력에 비해 자격증을 소지한 참여자들이 적은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외국인 상담사로서 혜택이라고 생각하였다. 제한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외국어 상담사례를 일부 인정하는 것 때문에 자격요건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조선족 상담전공자들과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의 상담수련 기회의 차이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어적 이점을 이용하여 상담수련 기회를 얻는 경험에 대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찾기 어려웠다.

제한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상담실무과정에서 상담수련비용과 제한된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들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에게 허용되는 취업 활동은 일반 통·번역이나 사무보조 같은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정되

며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하이코리아, 2022). 또한 상담전공 유학생들은 학위과정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수퍼비전, 집단상담 참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 상담수련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상담수련생이자 유학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점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수련과정에 있는 한국인 상담사들(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영석, 2017)과 중국인 상담사들(곽열, 하정희, 2021) 모두 상담교육 및 상담수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담전문직의 낮은 보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상호교차성 이론과 Hays(2008)의 ADDRESSING 모형을 토대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조망하였다. 상호교차성 이론에서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개인의 경험(예, 불평등, 억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Rosenthal, 2016; 김태선, 신주연, 2020에서 재인용).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미국 노동시장 내 흑인 여성들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Crenshaw, 1989), Crenshaw는 인종, 계급, 젠더, 민족 등 다차원적인 불평등 요소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흑인 여성들의 불평등 경험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신경아(2017)가 성별, 고용 형태, 지위, 연령, 외부화 등의 요인들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Hays(2008)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ADDRESSING 모형을 제안하였다.

ADDRESSING은 각각 연령과 세대(A), 선천적 장애(D), 후천적 장애(D), 종교와 영적 지향(R), 민족·인종(E), 사회경제적 지위(S), 성적 정향(S), 토착유산(I), 국적(N), 성(G)을 의미하는데, 한 개인의 특성들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경험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외국인이면서(N),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유학생이자(김성혁 등, 2012) 다른 전공에 비해 학위과정 외 추가적인 수련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담전공자이다(S). 구체적으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에 비해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업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사 처우와 수련비용 문제는 국내 대다수의 상담전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지만,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한국 내 취업 활동에 제한적인 유학생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른 한국인 상담전공자들보다 수련과정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한편,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어 숙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E), 이로 인한 불평등 경험의 정도와 양상이 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조선족 상담전공자들보다 수련과정에서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수련기회가 더 부족하며, 중국어 상담사례는 일부만 수련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자연장의 어려움 또한 추가적으로 경험한다. 이

처럼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수련을 경험하는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한국인 상담전공자들보다 더 힘든 경험을 했을 것이며, 그중에서도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의 경우 민족과 관련한 불평등 경험이 더 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련경험의 의미: 자기돌봄의 필요성 인식, 사회적 연계망과 성장을 위한 분투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학업과 상담수련을 지속하면서 신체적·심리적 소진을 경험했지만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느라 이를 뒤늦게 알아채는데, 참여자들은 이런 도전과 분투가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중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조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상담 및 수련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마저 어렵고 이를 해결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 조선족 상담전공자들은 비조선족 상담전공자들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더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소속 기관에서 유일한 중국인 상담사로서 특별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에 대해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과 경로가 부족하여 더욱 고민이 되었고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더욱 소진되었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외국어 상담사례가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는데, 특히 수련과정에서의 재정적인 부담은 대학원 과정에서 유학생으로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이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이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든 것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는 현실이었다. 특히, 비조선족 참여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 상담사로 활동하기를 원했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진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많은 과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완수하느라 자신이 심리적으로 소진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수퍼비전이나 교육 분석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에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관리를 하면서 심적·신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자신을 돌보지 않아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현상은 한국인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 소진과 함께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소진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힘든 수련과정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동기나 동료수련생들과 수련과정뿐 아니라 개인적

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였고, 중국인 상담전공자들과도 서로 공감하면서 많이 의지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지지와 도움, 교수의 지지와 격려는 이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이들이 수련과정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수퍼비전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수퍼바이저로서 그리고 ‘내담자’로서 수퍼바이저에게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수퍼바이저들의 공감에 보상받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상담전문가로 성장해나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주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수련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구성원들 외에도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에 입문하면서부터 지녔던 초심과 상담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원동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처음에는 상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상담수련을 시작했고, 수련과정에서 상담 직종에 대한 적성을 발견한 후 상담전문가를 꿈꾸면서 수련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주변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힘과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포부는 수련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에 대한 주변 지지집단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는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와 유사하지만, 개인적인 목표와 초심의 영향으로 얻은 원동력과 힘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다.

한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상담이론을 배우고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였고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성장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관계지향적으로 변화였고, 성숙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법을 익혔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수련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으며 수련과정 자체를 의미 있는 선택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낸 후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의 수련과정에 대한 도전적인 마음과 자신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을 언급한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Ximei, 2020)는 있지만, 대학원 과정과 상담수련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의 성장 또한 수련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상담수련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다양한 돌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감, 경청 등 다양한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며,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전공자들이 수련과정을 통해 상담능력과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박웅식, 201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미정과 박승민(2015)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사로서 발달해가는 과정을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시숙(Zeitigen)’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상담사들이 ‘시숙’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해나가고 상담전문가로서 개인적 자기 발달을 사회적인 삶에 통합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 역시 상담, 슈퍼비전, 교육분석 등 다양한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였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상담사로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과 포용력이 커졌고, 기술적인 노하우와 함께 ‘시숙’을 경험하면서 상담사로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상담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속적인 상담수련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나온 수련과정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련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슈퍼비전을 병행한 상담 경험을 늘리고 새로운 상담이론과 기법을 배운 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본인이 치료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아와 전문적 자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는 상담수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언어, 학업, 사회적 관계,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적의 다른 전공자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상담전공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학업과 관련된 교육시스템,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나 요건, 언어 및 문화적인 부분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잘 모르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외국인 상담전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대해 살펴본 민진영(2013)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학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정보 부족을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외에 전공에서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을 위해 학업과 관련된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답변해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 및 정서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혹은 전공에서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도 한국어, 전공 지식, 교육시스템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혹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Behl 등(2017)도 미국에 있는 상담전공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언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규범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며, 학술 및 문화적 측면에서 조언자(advisor)를 매칭하여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국 문화의 매너리즘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 관련 자격을 관리하는 학회에서도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 혹은 담당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담수련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학생으로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유학생 생활 및 상담수련과정을 안정적으로 경험하고 학업과 상담수련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상담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혼자 채워가면서 상담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기사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사만이 직면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비슷한 경험을 하는 동료상담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Ng(2006)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상담전공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 기관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포럼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e(2013)는 많은 유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다른 유학생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매우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Bochner, McLeod와 Lin(1977)은 자국 학생들과의 관계가 자존감, 문화적 정체감 형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자조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면 상담수련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 관련 학과와 학회에서는 다양한 통로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향수병에 걸리거나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하정희, 2008). 그뿐 아니라 외국인 상담전공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에게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상담사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상담 경험을 생생하게 듣고 느끼는 점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다문화인식을 증가시키고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

는 등 상담사로서 성장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보고한 상담수련 기회 부족 현상은 이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상담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많은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상담실무과정에서 상담수련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상담 관련 교육 및 상담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보고, 필요할 경우 상담 관련 학회 혹은 각종 상담기관에 상담수련 기회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 대학상담센터 이외에도 외부 상담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들이 많은 상담기관에서의 상담수련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상담수련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수퍼비전이나 공개사례발표 및 그 외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 진행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대학상담센터, 다문화청소년학교 내 상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 상담기관 등 다양한 상담 관련 기관 혹은 상담 관련 학회에서는 소수의 사례라도 외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을 경험하고 상담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Skovholt와 Ronnestad(1992)가 제안한 상담사 발달 모델에서 핵심은 상담사들이 전생애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수련과 임상경험을 통해 상담사 발달을 이루고 ‘개인적 자기 발달’과 ‘전문가적 자기 발달’이 통합되어 전인적인 발달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수련생들에게 있어서 상담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상담

이론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능동적으로 상담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과 다양한 상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함께 이뤄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바이저들이 중국인 내담자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 내담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이해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수퍼바이저가 상담사의 문화적 배경과 내담자의 문화적 장벽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수퍼바이저들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실정에 맞춰 수퍼바이저 및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문화적 민감성과 다문화적 감수성(김옥순, 2008)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중국인 내담자와 상담한 후 수퍼비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수퍼바이저와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과정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저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id와 Dixon(2012)는 다문화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수퍼바이저를 위한 가이드를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라포를 형성해야 하며, 문화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 수퍼비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논의하며,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고, 수퍼비전과 상담

수련과정에서 수퍼바이저의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라포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외국인 상담사를 배려해서 미리 수퍼바이저에게 질문을 제공하고 답변(내담자 이해, 도움받고 싶은 부분, 수퍼비전에 대한 기대 등)을 작성한 후 공유하는 사전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 이해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숙한 상담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통역을 진행한다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상담사 자격증 취득 요건에서 외국어 상담 관련 규정과 상담사로서 체류 가능한 비자가 없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대다수의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다른 상담사들에 비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일부 자격증 취득 요건에서 외국어 상담사례를 일부분만 인정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절차 및 요건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국인에게 있어서 비자는 국외에 체류하는 데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상담사 직종이 특정활동 비자가 허용하는 85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하이코리아, 2022) 학업을 지속하면서 체류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한국에서 상담사로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표현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는데, 참여자 모집 당시 본 연구의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 상담전공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중국인들에게도 상담 분야가 여초 직종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가 재한 중국인 남성 상담전공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2년 9개월부터 11년 8개월까지이고 상담경력은 1년 3개월부터 10년까지로 범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한국 거주 기간이 긴 참여자들은 유학 초반에 경험했던 상황을 회상하기가 쉽지 않고 상담경력이 긴 참여자들도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을 때 경험을 떠올리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자들은 SNS를 통해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으나 연구조건에 적합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 어려워 눈덩이 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하나인 눈덩이 표집은 표본 수의 제한으로 선택 편향과 외적타당도에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Cohen & Arieli, 2011). 셋째, 조선족 4명과 비조선족 7명 총 1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는데, 각 집단의 참여자 수와 총 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에 상담수련경험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확정 짓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에게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하였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수련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동기를 가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수련경험을 한 상담전공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모집하여 이들의 수련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다른 나라의 상담전공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은 이론 중심의 학위과정과 실무 중심의 임상수련과정을 모두 경험하고 인터뷰 당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상담실무를 경험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 경험을 쌓지 못했거나 상담수련경험은 있지만 비자 혹은 취업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이 있다. 이들의 수련경험은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모집 범위를 다양하게 해서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들의 수련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 열, 하정희 (2021).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는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4), 55-84.

- 교육부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823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검색.
- 김선남 (2007).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10(1), 186-206.
- 김성혁, 최혜정, 김수진 (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다문화건강학회지*, 2(1), 1-15.
- 김옥순 (2008).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1), 193-217.
- 김정희, 김영순 (2018). 재한 중국동포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을 통해 본 정체성 협상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60(0), 285-309.
- 김태선, 신주연 (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 민진영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응식 (2018). 상담센터 인턴상담사의 임상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아 (201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교차적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3(4), 77-118.
- 신선희, 유문무 (2014).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8(2), 45-69.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과주: 한길사*.
-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 이상학, 서영석 (2017).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985-1026.
- 이유경 (2014).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회*, 55(0), 251-283.
- 조운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 채순옥, 최혜란 (2015).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1), 73-89.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탁정 (2018). 재한 중국조선족 대학원유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언어문제에 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이코리아 (2022). 출입국/체류 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Main.pr>에서 검색.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하창순, 선혜연 (2010). 한국대학생과 조선족 및 한족 중국유학생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비교연구. *인간이해*, 21(2), 317-328.
-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Ximei, A. (2020).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조선족과 한족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tkinson, D. R., & Lowe, S. M. (1995). The role of ethnicity, cultural knowledge, and conventional techniqu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J. G. Ponterotto, J. M. Casas, L. A. Suzuki, & C. M. Alexander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unseling* (pp. 387-414). Thousand Oaks, CA: Sage.
- Behl, M., Laux, J. M., Roseman, C. P., Tihamiyu, M., & Spann, S. (2017). Need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CACREP program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6*(4), 305-318.
- Black, J. S., & Mendenhall, M. (1991). The U-curve adjustment hypothesis revisited: A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2*(2), 225-247.
- Bochner, S., McLeod, B. M., & Lin, A. (1977). Friendship patterns of overseas students: A functional model 1.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2*(4), 277-294.
- Chen, Y. H., & Van Ullen, M. K. (2011). Helping international students succeed academically through research process and plagiarism workshops. *University Libraries Faculty Scholarship, 72*(3), 209-235.
- Clawson, T. (2004). Is counseling an international concern. *The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20*(2), 1-2.
- Cohen, N., & Arieli, T. (2011). Field research in conflict environments: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snowball sampl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48*(4), 423-435.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 139-167.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Fuertes, J. N., Potere, J. C., & Ramirez, K. Y. (2002). Effects of speech accents on interpersonal evaluation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researc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4), 346-356.
- Gall, M. D., Gall, J. P., & Borg, W. R. (2003).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7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Giorgi, A. (202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University Professors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Hays, P. A. (2008). *Addressing cultural complexities in practice: Assessment, diagnosis, and therapy (2nd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lloway, E.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illian, K. D. (2001). Differences making a difference: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supervisory relationship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2*(2-3), 61-103.

- Knox, S., Schlosser, L. Z., Pruitt, N. T., & Hill, C. E. (2006).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graduate advising relationships: The advisor perspectiv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4), 489-518.
- Lee, K. C. G. (2013). Training and educat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professional psychology: What graduate programs should know.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7*(1), 61-69.
- Mittal, M., & Wieling, E. (2006). Training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doctoral student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3), 369-383.
- Ng, K. M. (2006). Counselor educator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8*(1), 1-19.
- Ng, K. M., & Smith, S. D. (2012). Training level, acculturation, role ambiguity, and multicultural discussions in training and supervising international counsel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4*(1), 72-86.
- Perrucci, R., & Hu, H. (1995). Satisfaction with social and educational experiences am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6*(4), 491-508.
- Peterson, D. M., Briggs, P., Dreasher, L., Horner, D. D., & Nelson, T. (1999). Contribu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programs to campus diversity.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999*(86), 67-77.
- Reid, L. M., & Dixon, A. L. (2012). The counseling supervision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 culturally-sensitive supervision model for counselor educators. *Journal for International Counselor Education, 4*(1), 29-41.
- Rosenthal, L. (2016). Incorporating intersectionality into psychology: An opportunity to promote social justice and equity. *American Psychologist, 71*(6), 474-485.
- Sanganjanavanich, V. F., & Black, L. L. (2009). Clinical supervision for international counselors-in-training: Implications for supervisors. *Journal of Professional Counseling: Practice, Theory & Research, 37*(2), 52-65.
- Schlosser, L. Z., Knox, S., Moskovitz, A. R., & Hill, C. E. (2003).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graduate advising relationships: The advise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78.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 Wang, Z., & Lu, A. (2017). Collectivism and commitment in Chinese people: Romantic attachment in vertical collectivism.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5*(8), 1365-1373.

원 고 접 수 일 : 2021. 11.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3. 03

계 재 결 정 일 : 2022. 03. 30

The Professional Training Experience of Chinese Counseling Majors in Korea

Hong Hua Zhou

Master's Degree

So Yeon Rhie

Yonsei University

Doctoral Student

Young Seok Seo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deeply into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experiences of Chinese counseling majors in Korea. The researchers recruited 4 Korean Chinese counseling majors and 7 other ethnic Chinese (non-Korean Chinese) counseling majors using the purposeful sampling method. They participated in an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ata analysis yielded 5 components, 15 categories, and 29 sub-categories. Five components included 'Reasons for majoring in counseling in Korea and complex feelings about them',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studies and training process', 'Benefits as a foreigner counseling major', 'Meanings of training experience: overcoming and growing on their own and together in difficulty',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change in the counseling training and legal system'.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were integrated and reconstructed to create an essential structure of Chinese counseling majors' experiences in Korea.

Key words : Chinese Counseling Majors in Korea, training experience, Korean Chinese, non-Korean Chinese